푸른 원에 담긴 禪예술의 극치로…

윤양호 작가 33번째 개인전 5월 10~16일 가나인사아트센터

4월 출판 작품집 기념전
20여년 작품활동 총망라
'Zen-Geist…' 등 30여점
도형·단색으로 표현해
禪의 정신 극대화시켜

사유와 명상의 대상인 원이 깊은 파란색으로 차 있는 걸 보니 뻥 뚫린 마음 한 가운데가 푸른 바닷물로 가득 차는 것만 같다. 선(禪) 예술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윤양호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선의 정신이구나' 를 느낄 수 있다.

선(禪)의 정신성을 현대미술에 접목시켜 새로운 개념의 예술을 펼치고 있는 윤양호 작가의 33번째 개인전 'ZEN AND MONOCHROME'이 5월 10~16일 가나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작품집 출판을 기념하는 전시다. 윤 작가는 20여 년 동안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펼친 작품들을 정리한 작품집을 지난 4월 10일 발간했다.

그동안 작품 활동이 총 망라된 만큼 작가의 정신성과 예술성이 드러나는 작품이 대거 전시된다.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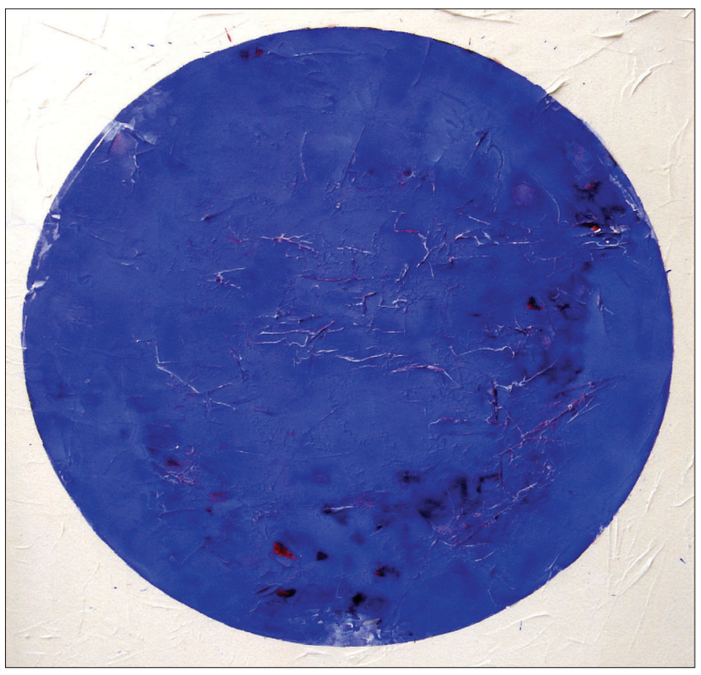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시리즈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터득한 깊은 정신의 울림을 단색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푸른 원(圓)이 작품의 주를 이루는데 살아있는 에너지, 즉 기(氣)가 그 안을 팽팽히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 속으로 깊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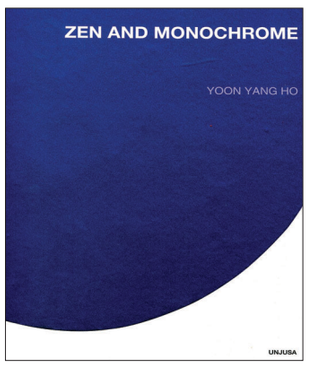
국내외 평론가들은 이러한 윤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편의 수행과 같다' 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독일의 랄프 가블릭 평론가는 "윤양호 작가는 마치 수행자와 같다. 작품 속 도형과 색채를 통해 최고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예술과 삶의 가치가 동행하는 새 모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원로 박래경 평론가는 "윤양호 작가가 선보이는 것은 바로 절대형태로서 원(圓)에 대한 모색이다. 사유와 명상의 대상이 돼 왔던 원을 시각적 언어의 기본 형태로서 극대화시킨 작품들"이라면서 "압도적인 크기의 원, 청색 일변도의 강렬한 단일 색채감을 각인시키는 일련의 작품들은 정신적으로나 시각, 지각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고 해석했다.

윤양호 작가는 1996년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 입학해 동대학 아카데미브리프(석사) 및 마이스터쉴러 학귀(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9년 독일 쾰른에 있는 Still Bruch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2001년 독일 오덴탈시 주최 현대미술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귀국 후 2005년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선조형예술학과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미술, 선에게 길을 묻다〉〈현대예술 속의 불교〉(공저)가 있다.


Zen-Geist-아는 것을 버리다, mixed media on canvas, 162×130cm, 2017



윤양호 작가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9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혼'

5월 16~17일 국립극장 달오름서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해설이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혼'을 5월 16~17일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진행한다. 명인명무전은 한국 전통춤과 판소리 등 전통예술을 하는 예인들이 꾸미는 무대로, 1990년 처음 시작돼 조선 마지막 무동명무 故 김천흥 선생을 비롯해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선생, 명무 故 김계화 선생, 일인창무극 故 공옥진 선생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무혼'은 한(恨)과 설움을 춤으로써 승화한 것이다. 이매방류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선생 등 원로·중견 무용가가 출연하며 박동국 대표가 예술총감독 및 해설을 맡는다.

16일은 △연향무(윤송미 백향무용단장) △한량무(이문순 대구살풀이춤 이수자외 2명) △교방입춤(박성신 미텍사스주 한국국악협회 지부장) △단향무(박소정 예술나라 무용학원장) △동초수건춤(장인숙 호남살풀이춤 보존회장외 15명) 등 10개 공연이 펼쳐진다.

또 17일은 △승무(오은희 서울예술대 교수) △입춤(안춘자 관악무용협회장외 4명) △태평무(홍진희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교수) △원향살풀이춤(엄옥자 인간문화재) △호남산조춤(이길주 일간문화재 외 10명) △예기무(김광숙 인간문화재) △이매방류살풀이춤(정명숙 준인간문화재 외 7명) △진도북춤(김진옥 명지대 객원교수 외 4명)이 무대에 오른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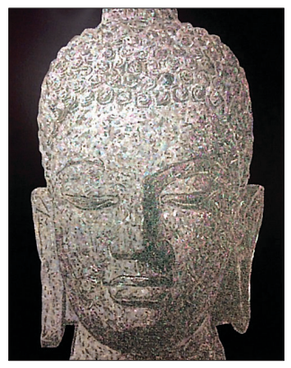
자개 파편으로 부처의 모습을

불일미술관, 김일중 작가 '믿는다는 것' 展

불일미술관은 김일중 작가의 '믿는다는 것' 展을 5월 2~14일 1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2017 신진작가공모전의 개막전으로 불일미술관은 올 12월까지 매월 신진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를 진행한다.

김일중 작가는 '미륵반가사유상' '석굴암 본존불' '간다라 석불' 등 12점의 자개 작품을 선보인다. 빛을 투과시키는 동시에 반사시키는 이중성을 지닌 자개에 아크릴 물성을 더해 가상적이고 영적인 느낌을 극대화시켰다. 자개 파편 덩어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 부처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원본과 사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불일미술관 측은 "허구이면서 창조물이기도 하고, 부분이면서 전체이기도 한 김 작가의 작품들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란 화엄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작품들을 통해 인간 실존의 진정성과 무상성이란 이면을 엿보게 하는 불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다라석불 117x90, 2016

박아름 기자

BTN 봄개편, 유익하고 'Fun' 한 프로그램 대거 편성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 등 신규 프로그램 및 기존 프로그램 확대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봄 개편을 맞아 더욱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BTN은 봄 개편 신규 프로그램들을 5월 15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개편에선 스님들이 직접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쉽고도 재밌게 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됐다.

먼저 즉문즉설로 유명한 남전 스님이 격투스포츠 해설위원 김남훈 씨와 함께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우리도 부처님같이' 를 진행한다. 남전 스님과 김남훈 씨의 환상케미에 더해 불교공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후문이다. BTN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강력추천' 하는 프로그램.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금요일 새벽 1시,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또 힐링멘토 원빈 스님이 절에서 만난 친구들, 일명 '절친들' 과 함께 일상과 수행의 무한 이야기를 펼치는 '청춘토크쇼 절친 시즌2' 도 눈길을 끈다. 다사다난한 청춘들과 해결사 원빈 스님이 법구경을 통해 일상과 수행의 경계 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목요일 오후 12시 30분과 11시, 토요일 오후 9시, 일요일 새벽 1시 방송.

아울러 지난해 첫방송 된 후로 큰 인기를 끌었던 4승4색 신개념 토크쇼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가 시즌2로 돌아온다. 이번 개편에는 4명의 스님들이 일반인들의 생활과 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새벽 1시, 일요일 오후 10시 방송.

마지막으로 혜국 스님의 강좌 '부처님 생애' 는 불자들에게 불교 교육을 더욱 알차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소에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처님 알기가 선행돼야한다" 고 강조하는 혜국 스님이 부처님 생애와 위대한 교훈을 심도 깊게 알려줄 예정이다. 월요일 오후 3시, 수요일 새벽 4시,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방송.

이밖에 기존 프로그램들의 시간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BTN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우리도 부처님같이' 스틸컷.

박아름 기자

종이 해체·결합해 표현한 '空 사상'

신호윤 작가 기획전 '본질은 없다'

신호윤 작가의 기획전 '본질은 없다'가 5월 3~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신 작가는 종이를 소재로 현대사회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선 종이를 해체하고 다시 붙이는 레이어 결합을 통해 부처의 형상을 있는 듯 없는 듯 표현, 공의 세계를 나타낸 작품 15점을 소개한다. 대표작 'There is no essence: Buddha' 'Strange Flowers' 등 포함 됐다.

박미현 미술평론가는 신호윤 작가의 '본질은 없다' 展에 대해 "작품 세계가 세포의 핵공과 같다"고 비유하며 "기도를 올리는 성상은 함부로 형체가 구체화되거나 굳어버리는 것을 막는다. 안팎을 넘나들며 형태를 초월하고 마음을 비운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신호윤 작가는 2016년 상해국제인쇄주간 금상, 201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2012년 대한민국 종이예술작품 공모대전 대상, 2011 하청웅 청년작가 선정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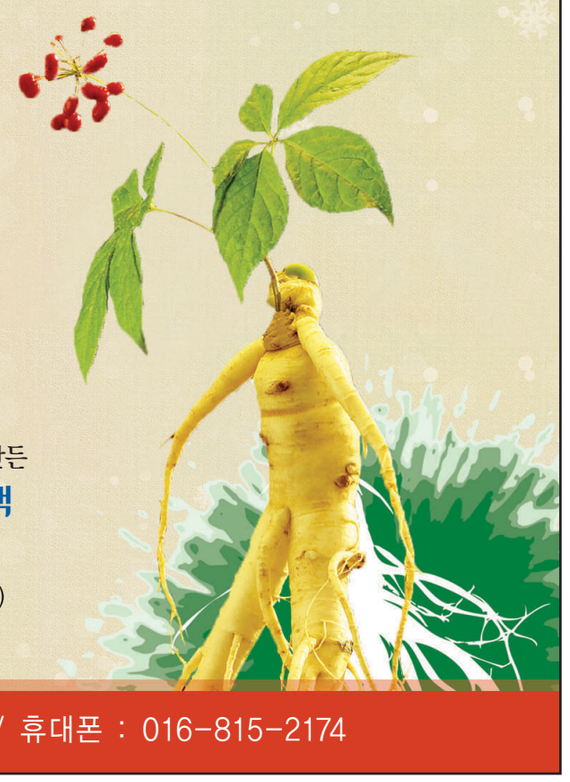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자연을 입다
풍기인견 대광인견 since 1947
DAEKWANG VISCOSE RAYON
자연을 입을 수 있게 자연섬유.
인견제품생산전문업체
풍기인견은나무에서추출한 순수자연섬유로써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친화적인 자연소재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통풍력이 뛰어나며 정전기 또한 없는 자연 그대로를 느껴 입어 보시고시원함을 피부로 느껴 보세요.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46번길 12-5 (성내3리106) / 전화 054-636-2362.636

풍기정품인삼 풍삼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풍삼정쥬니어홍삼액.풍기홍삼편. 풍삼정홍삼환.홍삼진액.홍삼청국장.백미삼.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 휴대폰 : 016-815-2174